



‘트라피체 설립 100주년 기념 최상위급, 그란 메달라’

트라피체 그란 메달라 까베르네 소비뇽

Gran Medalla Cabernet Sauvignon

| | | | |
|----------|-----------------------------------------------------------------------------------------------------------------------------|----|-------|
| 지역 | 아르헨티나 > 멘도자 | | |
| 포도품종 | 까베르네 소비뇽 100% | | |
| 알코올 | 15% | 용량 | 750ml |
| 시음 적정 온도 | 15~18℃ | | |
| 테이스팅 노트 | 짙은 보랏빛 컬러의 와인으로 다크 베리류의 향과 바이올렛 꽃 향 그리고 신선한 발사믹 향이 어우러진 아로마가 인상적이다. 풀 바디의 와인으로 감칠맛 나는 팔레트와 부드러운 구조감 그리고 길고 정제된 피니쉬가 매력적인 와인 | | |
| 페어링 TIP | 붉은 육류, 파스타, 밀가루, 단단한 치즈 | | |

#선물와인/#프리미엄와인



제품설명



[메달라'는 1983년 트라피체 와인너리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트라피체의 대표 울트라 와인 레인지로 그란 메달라는 메달라의 상위 레인지로 메달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Medalla'는 '메달 수상자'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세계 굴지 여러 시상식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상한 트라피체의 훌륭한 와인을 상징하고자 '메달 수상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완성된 이름이다. 18개월간 새로운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스모키한 아로마와 강렬한 풀 바디를 형성한다. 트라피체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블랙 라벨로 재탄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3점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
 2020빈티지 92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서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톨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명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